사회 3-2

2.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> [12~13차시]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시 풍속 체험하기 (교과서 85~87쪽)

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시 풍속 체험하기

반 번 이름: _____

1. 다음 □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.

- 옛날에는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에 '□□□' 이라는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. 단오 부채를 나누어 주는 풍속은 임금이 단오에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하던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.
- □□□ 는 설날과 정월 대보름 사이에 가정이나 마을에서 여럿이 함께 즐기던 놀이입니다.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놀이를 하면서 한 해의 □□ 를 점치기도 했습니다.

2. 단오에 부채를 만들어 나누어 준 까닭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.

_____

3. 다음은 민준이네 반 아이들이 윷놀이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 것입니다. 바르게 이야기한 어린이를 두 명 찾아봅시다. ( )

- 현성: 윷놀이할 때는 윷, 윷판, 윷말이 필요해.
- 예원: 윷놀이는 어른들이 하는 게임이야.
- 선아: 윷을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 윷말을 옮겨야 해.
- 민준: 상대편의 윷말을 잡거나 도가 나오면 윷을 한 번 더 던질 수 있어.
- 준희: 한 개의 윷말이 먼저 출발지로 들어오는 편이 이기는 놀이야.

4. 다음을 윷놀이하는 순서에 맞게 나열해 봅시다.

㉠ 각 편마다 윷말을 4개씩 나누어 갖습니다.

㉡ 윷판을 놓고 편을 나눕니다.

㉢ 윷을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 윷말을 옮깁니다.

(→ →)